

전란기의 제주문학과 『제주신보』

김 동 윤*

차 례

1. 들머리
2. 『제주신보』에 나타난 전란기 제주의 사회와 예술
3. 계몽목: 다양한 활동과 그 이면
4. 장수철: 기항지에서의 삶과 창작
5. 김구량과 김종평: 정훈예술의 실상
6. 제주의 청년문사들과 학생문단
7. 마무리

1. 들머리

이 글은 전란기(戰亂期)에 간행된 제주도의 일간신문 『제주신보(濟州新報)』를 통해 당시에 전개된 제주문학의 양상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그 동안 『한국전쟁기의 제주 문단과 문학』(2000)·『계몽목의 제주 체험과 문학』(2005) 등을 통해 이 시기의 제주문학에 대해 살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제주도에서 발간된 신문인 『제주신보』, 『탐라신보』, 『한라신문』, 『소국민신보』 등이 대부분 유실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 제주대학교 교수

검토할 수 없어서 문학활동의 면모를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말하는 경솔함을 범하고 말았다. 물론 상당수 자료는 유실되었을 수도 있지만, 『제주신보』는 1952년 1월분부터 도서관과 신문사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탐라신보』 등도 추적해 본다면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논의에 앞서 전제해 둘 사항은, 여기서의 ‘전란기’란 제주4·3이 진행된 기간을 말한다는 것이다. 1948년 4월 3일부터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된 1954년 9월 21일까지가 제주문학에서 전란기에 해당한다. ‘제주4·3기’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전쟁기’라는 의미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제주4·3은 1949년 6월 7일 이덕구 사령관의 죽음을 계기로 무장대가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이듬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로 사태가 연장되고 그 피비린내가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1953년 7월에 끝났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그 후로도 1년여를 끝나지 않은 전란 속에 시달려야 했다. 따라서 제주4·3과 한국전쟁이라는 굵직한 두 역사적 사건이 같은 기간에 겹쳐진(엄밀히 말하면 한국전쟁 기간이 제주4·3 기간에 포함되지만, 어느 하나만을 내세울 수 없는) 게 제주도의 상황이었기에 부득이 이런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 글에서 1948년 4월부터 1954년 9월까지 6년 6개월의 기간이 모두 다뤄지는 것은 아니다. 그 기간에 간행된 『제주신보』 중 꽤 많은 분량이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1948년 4월 21일부터 1951년 12월 31일까지의 『제주신보』를 찾아볼 수가 없다. 1952년 이후의 신문도 1952년 5~7월 자료, 1954년 4월 27일~11월 16일 자료 등이 통째로 누락되는 등 온전하지가 않다.

전란기 제주문학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잡지와 동인지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다. 김영화의 「제주문학 80년」(『변방인의 세계』, 1998), 김병택의 『제주현대문학사』(2005), 필자의 「한국전쟁기의 제주 문단과 문학」 등에서는 모두 종합지 『신문화』(1952~53)와 동인지 『흑산호』(1953)를 중심으로

전란기 제주문학을 다루었다. 당시 유력한 지역 매체였던 『제주신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한국 근·현대문학에서 신문매체의 역할이 지대했음에 비춰본다면, 한계를 지닌 연구들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란기 제주문학에 대한 자료 발굴과 보완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제주신보』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당시 제주의 문학과 예술의 양상을 보여주는 새로운 자료도 찾아내었고, 『신문화』와 『흑산도』 검토에서 의문점으로 남아 있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풀리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적잖이 남아 있다.

2. 『제주신보』에 나타난 전란기 제주의 사회와 예술

1950년대 초의 제주도는 여전히 지속되는 4·3과 한반도에서 터진 전쟁으로 상당히 어수선하고 묘한 상황이었다. 4·3으로 보자면 이른바 ‘공비토벌’의 대상지였고, 한국전쟁으로 보자면 ‘최후방(最後方)’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토박이들은 많이 줄어들었지만(4·3기간에 약 3만 명이 희생됨), 피란민으로 인해 전체 인구가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¹⁾ ‘제주피난민협회’도 결성되었다.

이때의 제주도는 공비(무장대) 토벌 지역, 전쟁을 지원하는 후방, 혼란스러운 피란지 등의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4·3으로 인한 살육에 버금가는 충격이 한반도의 전쟁으로 인해 제주공동체에 가해졌고, 그것은 제주사회의 큰 변동요인이 되었다. 『제주신보』에서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신보』는 1945년 10월 1일 창간된 신문이다.²⁾ 1950년대 초반의 『제

1) 피란민을 비롯하여 한반도에서 몰려온 사람들은 한때 15만 명에 육박하였다가 1952년 전선 상황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약 3만 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부만근, 『광복제주 30년』(문조사, 1975), 116~118쪽 참조.) 말하자면 1950년대 초반의 제주도 인구는 한때 40만 정도였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넘는 사람이 전쟁 때문에 건너왔다고 보면 된다.

주신보』는 2면(판형은 타블로이드판이었다가 A2판으로 바뀐다)으로 간행되었는데, 1면은 외신과 중앙의 통신사로부터 받은 기사들을 수록하였고, 2면은 제주도에 관한 기사들을 게재하였다. 따라서 제주의 문학·예술 관련 기사는 모두 2면에 실렸다. 광고의 경우는 1, 2면 가리지 않고 대부분 지역광고로 채워졌다.

4·3 관련 기사가 자주 보도되었음은 물론이다.

「三日 一名의 女匪가 脱出 歸順하였다. 이로써 殘餘 殘匪는 一名의 女匪를 包含하여 五名에 주러드렸는데, 三挺의 小銃만을 가지고 있는 敵은 三名과 二名의 두 匪로 分離 接線이 안 되어 時時刻刻 迫到하는 最後 運命의 恐怖 속에 共匪 아닌 強盜가 되고 마렸다.」³⁾

「二派 分열코 절망의 연명/온정의 포섭에 여비 一名 또 귀순」이라는 부제 아래 보도된 기사의 리드 부분이다. 경찰국 발표를 토대로 작성된 이 기사는 2면의 머리기사로 보도되었다. 「공비의 생활상은 이러타」(1952. 12. 5~6), 「공비 수괴 등 삼명을 사살」(1953. 4. 17), 「속히 내려오라!—잔비귀순권고 빼라 撒布」(1953. 10. 10), 「싸우는 경찰대를 찾아」(1953. 10. 30) 등 특별 관련 기사는 주요 기사로 『제주신보』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특별작전을 위한 한라산 금족령이 1954년 9월 21일까지 내려져 있었던 와중에도 한라산 학술 답사(탐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잔비의 蠢動으로

2) 창간 당시 제호는 『濟州民報』였다가 1946년 1월 26일 『濟州新報』로 바꾸어 등록하였다. 격월간이던 신문이 일간으로 된 것은 1947년에 접어들어서의 일이다. 1947년 1월에는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 유지들을 영입하는 한편 회사를 주식회사로 개편하였는데 이때 김석호가 사장이 되었다. 1948년 12월 서북청년단의 강제 접수로 빼앗겼던 김석호 사장은 운영권은 1950년 3월에 회복되었다가 다시 수난을 겪는다. 1951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계엄당국에 의해 접수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창간 초기에는 중립성을 표방하였으나 4·3과 전쟁을 거치는 동안 두 차례 강제 접수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반공적 성향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제주신보』는 유력한 지역매체로 성장해 나가게 된다. 이문교, 『제주언론사』(나남출판, 1997), 123~171쪽 참조.

3) 「한라공비는 이제 오명!」(1954. 2. 16). 이하 『제주신보』를 인용할 경우 발행 연월일만 명기함.

사·삼사건 이래 길이 막아진 천고의 명승 한라산 영봉 백록담을 희망자에게 답사시켜 학술연구 자료에 供하는 한편, 지형의 실정 파악으로 토벌작전에 대하여 일반에 인식을 주고자” 경찰국 주최로 1952년에만 6월과 9월 두 차례 실시되었다.⁴⁾ 1953년 1월 1일자로 간행된 『신문화』 제3호에 윤공⁵⁾의 「녹담만설」이 실렸는데, “그때가 六月 하순”(16쪽)이라는 언급으로 보아 1952년 6월 답사에 동행했음이 확인되었다.

당시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기사는 이른바 ‘서귀포 필화사건’이다. 이는 광복절 및 이대통령 재취임 1주년 기념 서귀면민 경축대회 플래카드에 “偉大한 領導者 李承晩 大統領의 뒤를 따르자”라고 써야 할 것을 ‘승導者’와 ‘李承萬’으로 한자를 잘못 표기한 서귀농고 교원 김응천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이었다.⁶⁾ 한국전쟁을 통해 가속화되던 이승만 독재의 실상을 보여주는 일례였다고 할 수 있다.

전란기의 제주에는 전쟁고아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었다. 1950년 12월 1000여 명의 고아들이 이송되면서 제주에는 여러 개의 보육원이 생겨났다.

濟州邑 吾羅里에서 一年有餘의 避難生活를 마친 ‘忠北希望院’ 고아 二十八名은 再昨 四日 下午 五時 發 濟釜정기선 平壤호로 그림던 원주지인 청주로 돌아갔다. 이들 고아들은 재작년 십이월 중공침략군의 남침에 따라 본도로 피난 오게 되었던 것인데 본도에 주거하는 동안 따수하게 맞본 ‘인정의 보금

4) 「한라산 학술답사대 모집」(1952. 6. 20); 「한라산 답사 來16일 경찰국 주최로」(1952. 9. 2) 참조.

5) 당시 공군 정훈실장(양중해 증언)이었던 윤공은 『신문화』 제2호에 단편소설(소품) 「첫사랑」도 발표했다. 『제주신보』에는 윤공의 「나는 가련다」라는 시가 수록되어 있다. 김소월의 「산유화」를 연상케 하는 작품이다.

水仙花/나는 가련다/그대는 언제나 저만치 혼자 피었기에/나는 가련다//水仙花/나는 그대를 한없이 그리워했오/봄비에 버림받고/거센 바람 눈속에/너무나 향기로워//水仙花/나는 미칠 듯이 그대를 기다렸었오/한라산 저 뿔부리에/곱게 단장한 그 입술이/미소로 보내는 날을//水仙花/그러나 나는 가련다/향기로운 향내와 함께 활짝 핀 그대는/언제나 저만치 혼자 피었기에/그대를 떠나 나는 가련다.(1953. 2. 6)

6) 「서귀포 필화사건에 ‘免訴’ 언도」(1953. 10. 30)

자리'를 동심의 추억 속에 고스란히 품고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며 떠났던 것이다. 이날 부도에는 이들의 웅색한 피난생활을 음양으로 친부모 못지않게 도와주었던 당시 CAC 관계관들이 감격어린 見送 나왔었다.⁷⁾

피란지이자 비교적 안전한 후방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던 제주도의 위상이 드러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갑자기 인구가 늘어난 제주읍내에는 퇴폐한 후방의 면모를 드러내기도 한다. '고망술집' 관련 기사는 그 실상을 잘 보여준다.

골목에서 네 활개를 치는 고망술집은 取締당국에서도 수시점검하고 있으나 그래도 교묘히 꼬리를 감추어가면서 나날이 번창해 가고 있다. 이는 전시 생활개선법이 강력히 이행되고 있는 작금 반비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현상인데 取締당국자들은 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고망술집의 수효는 오십개소가 넘으리라고 보고 있다.⁸⁾

'고망술집'은 단순한 술집이 아니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염가로 주석을 즐길 수 있"고 "접대부들이 있어"서 "불야성을 이루"었다. 그래서 "관계 取締 당국에서는 그 단속에 부심하"9)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고망술집에 작가들도 종종 드나들었던 것 같다.¹⁰⁾

한편, 한국전쟁의 후방 제주도에는 예술인들도 여럿 상주하게 되었다. 직장(주로 군·경 관련) 때문에 제주에 머문 경우도 있었고 피란민 대열

7) 「그리운 고향으로!」(1952. 6. 6)

8) 「밤 골목에 활개 치는 '고망술집」(1952. 12. 15)

9) 「불야성 이루는 '고망집」(1952. 10. 20)

10) 장수철도 제주 체류 기간에 '고망술집'을 자주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산에 가서 쓴 글인 「제주에 부치는 편지」에 보면, "포케트의 잔돈들을 모아서는 꼬망술집으로 달렸습니다. 풍속을 이야기하며 민요를 굶직한 음성으로 같이 부르든 생각이 지금 생생하게 떠오릅니다."라는 회고가 있다. 『신문화』 제3호, 1953, 35쪽) 그리고 「趙炳華 氏, 黃順元 氏가 다녀가셨는데 濟州道 꼬망술집을 구경 못한 것이 유감이라고 한탄을 하시드라나」(『문화다방, 『신문화』 제2호, 1952, 29쪽)라는 언급에서 보면 당시 '고망술집'은 육지부의 문인들에게도 꽤 알려졌던 것 같다.

에 끼인 경우도 있었다. 이동주¹¹⁾는 정훈 활동의 일환으로 목포에 있으면서 제주를 드나들었고,¹²⁾ 정비석·황순원·박영준·조병화 등이 다녀가기도 했다.¹³⁾

인구가 급증하면서 제주읍내에는 다방이 하나둘 문을 열었다. 그곳은 예술가들이 회합하고 예술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동백다방이 1952년 1월에, 카네이션다방이 3월에 개업하였다. 동백다방은 “온갖 精力을 다하여 奮戰 ‘完遂’에 수고 만흐신 여러분들의 하루 ‘疲困’을 ‘동백’은 포근한 남쪽나라 꿈속에 풀어주”겠다는 개업광고(1952. 1. 21)를 내었다. 개업 직후에 “더욱 더 平安한 마음으로 그곳에 앉아 있을 수 있게 하기 爲해서 電球를 좀더 낮게 해주었으면 한다”는 글이 ‘독자와 기자’란에 「冬栢에 付託」(1952. 1. 29)이라는 제목으로 실리기도 했다. 카네이션다방은 향수다방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 다방 자만인 ‘음악의 멜로디’와 향훈 높은 커피는 족히 여러분의 심신의 위안제가 될 것”(1952. 7. 28)이라고 광고하였다. 다음은 1952년 12월 31일 향수다방에서 열린 ‘시와 음악의 밤’에 관한 기사다.

세모를 뜻깊게 보내고져 시내 향수다방에서는 오는 삼십일일 하오 육시부터 ‘시와 음악의 밤’을 개최하는데 일반인의 다수 참가를 바라고 있다. 이날의 다채한 프로는 다음과 같다.

△수필 「바다」 계용목, △시 「하늘」 윤공, △시 「사랑」 윤공, △「영자와 영자의 또하나 이름」 옥파일, △시 「목련의 꿈」 옥파일, △시 「제야」 양중해, △수필 「성산일출」 양중해, △수필 「사봉낙조」 이형근, △시 「오월의 망루」

11) 『제주신보』에서는 이동주의 「노을」이라는 시를 접할 수 있다.

고작 決鬪는 끝났다/사랑한다는 단 한마디로/내 청춘의 모도를 걸었노라//어찌 타 내 칼끝의 流血앞에/눈시울이 더워진다//진실로/미움이란 사랑보다 약한 것/노을이 들면/아마 모도가 아쉽고 슬퍼라.(1952. 1. 4)

12) 당시 이동주의 제주 관련 문학에 대해서는 박태일, 「1950년대 전반기 문학과 제주의 지역성」, 『한국언어문학』 제71집(한국언어문학회, 2009), 400~407쪽에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음.

13) 김동윤, 「한국전쟁기 제주 문단과 문학」, 『제주문학론』(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176쪽.

최현식, △시 「회고」 최영석, △시 (미정) 낭독 이애실, △시 (미정) 낭독 박애주, △시 「오늘」 김창수, △시 「백지의 노래」 김용한 (…)(회비 五千圓)¹⁴⁾

기사에서 시·수필 낭송(낭독)자들의 면모를 보면 대부분 『신문화』와 『흑산호』에 작품을 발표한 이들이다. 창작품 낭송자 가운데 토박이로는 양중해가 유일하고, 나머지는 모두 전란과 관련하여 제주에 체류하던 이들이다. 「성산일출」·「사봉낙조」·「회고」 같은 작품은 이듬해 1월 1일자로 간행된 『신문화』 제3호에 수록되었다.

갑자기 몰려든 예술인들의 활동으로 인해 제주에는 4·3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예술활동의 열기가 지펴진다. 정훈활동과 직접 관련된, 반공·애국 사상을 고취하는 활동이 주류를 이루었다.

‘공비토벌기록영화’인 「한라산에 봄 오다」가 제주도 경찰국 제작으로 제주읍내의 제주극장에서는 물론 도내 곳곳을 순회하며 상영되었다.¹⁵⁾ 이에 앞서 이 영화의 완성을 보도한 『제주신보』의 기사 내용이다.

얼마 전 當地 경찰국에서 제작한 잔비토벌작전의 기록영화 「한라산에 봄 오다」(감수 이경진, 감독 백명현, 오권 오십분간 상영)가 완성되어 육일 필름이 부산에서 도착, 국사무실에서 시사회를 열었다. 내용은 사·삼사건이 남긴 잔비떼가 읍내 방송국까지 침입하여 재준동을 시작한 작년 가을 이 국장이 잔비토벌의 특명을 받고 착임 이래 적의 力量이 완멸될 때까지의 투쟁의 기록인데 전편을 통하여 정서 풍부한 남쪽 나라의 평화 풍경이 수록되고 있다.¹⁶⁾

4·3 토벌과 관련해서는 연극 공연도 있었다. 「밝아오는 한라산(일명 김봉길 참회록)」이라는 연극이 그것인데, 1952년 6월 10일부터 제주극장 무대에 올려졌다(1952. 6. 11). 1953년 9월에는 경찰국 공보실에서 마련한

14) 「시와 음악의 밤/시내 향수다방서」(1952. 12. 28)

15) 「한라산에 봄 오다/제극서 오늘부터」(1953. 12. 17)

16) 「討匪기록영화 완성」(1953. 10. 7)

「특별작전 사진전」이 제주도내 각 경찰서에서 열리기도 했다(1953. 9. 29).

육일훈사병 극단 상륙회에서는 방첩극 「상해에서 온 사나이」를 1954년 10월 10일부터 3일간 제주극장에서 공연하였다. 이 공연은 “전 2막 7장(유호 작·연출)으로서 휴전기를 이용코 방첩인식을 새롭게 하여 주는 계몽극”¹⁷⁾이었다. “조병창 정훈실에서 특별 지도”한 이형근 원작의 「사랑과 죽음」이라는 악극 공연도 있었는데, “동포애와 방첩사상 양양을 위한 심리묘사극”¹⁸⁾이었다. 조병창정훈실장보좌관으로 근무한 이형근은 『신문화』 제2호에 실린 「문학 동호인 좌담회」에 참여하였는가 하면 『신문화』 제3호에는 「재봉(再逢)」이라는 단편소설을 발표하였다. 이형근은 「학생극의 전통을 위하여」(1952. 7. 30)라는 글을 『제주신보』에 기고하기도 했는데, 경찰 공보관실 주최의 학생 경연(競演) 대회를 참관하고서 쓴 글이었다. 제주에서 전개된 군·경의 정훈활동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군경의 정훈활동과 다소 거리를 둔 예술 활동도 비교적 활발히 전개되었다. 1952년 1월 극단 ‘문협’이 발족되어 「탈옥수의 고백」을 창립 공연¹⁹⁾으로 올린 후에 「혼」·「낙랑공주」 등을 공연하였고, 직장예술인들의 모임인 ‘예원’이 결성²⁰⁾되어 ‘발레의 밤’ 공연 등을 가졌다.

경향신문 제주지사가 주최하는 ‘시민학생예술경연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제주도청·경찰국 등 9개 단체가 후원한 이 대회는 남자부, 여자부, 남학생부, 여학생부 등으로 나뉘어 열렸는데, 심사위원은 “위원장 김구량, 만담 촌극 김일영 구봉서, 가창부 심삼수 김용수, 기악부 김성파 구봉서” 등이었다.²¹⁾ 제주도병사구사령부 정훈실장인 김구량 소령이 심사위원장을 맡은 점, 만담·촌극과 기악부 심사를 구봉서가 담당한 점 등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17) 「방첩계몽극/육일훈사병 극단」(1953. 10. 9)

18) 「악극 사랑과 죽음/극단 예원서 공연」(1953. 10. 26)

19) 「연극인 땅라 문협 창립/탈옥수의 고백」 첫 공연」(1952. 1. 22)

20) 「예원」 발족/직장예술인의 모임」(1952. 8. 27)

21) 「시민학생예술경연대회」(1953. 1. 20). 1월 22일 신문에는 이 대회를 알리는 광고가 실렸음.

1953년에는 우생출판사가 생기면서 제주도 출판문화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다음은 우생출판사 탄생의 의의를 짚은 당시의 글이다.

전도적으로 도서관 하나 없는 형편으로 우생당과 신창사 양 서적상이 도서관을 대행하는 셈이요, 윗씨트사 하나 지형을 소유한 인쇄소 하나가 없는 실정이나 출판사업에 유의할 수도 없고 또 뜻을 가진다 해도 容意치 못한 실태로 제주도에서 (...) 當地 고순하 동지가 용감하게도 우생출판사 간판을 들고 혜성같이 나타나 (...) 단독 사재를 기우려 오죽 민족문화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해 보겠다는 포부와 희망 밑에서 출판하여 제일착으로 위인의 전기인 『위인의 선물』을 내고 제일착으로 시집 『흑산호』를 내고 이제 제삼착으로 만고불후의 세계적 명저로 대문호요 대사상가인 톨스토이 『참회록』을 우리말로 처음 세상에 탄생케 하니 반개성상의 나이 어린 출판사로서 출판의 역사가 얕다고 볼 수 있는 제주도에서 신기록을 접하는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 우수한 출판물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빈곤을 느끼는 이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양서가 특히 이 제주도에서 출판된다는 데 대하여 우리 삼십만 도민의 자랑이라 아니랄 수 없는 데서 우리는 등한시하지 말고 자꾸 격려하고 육성시키여 출판문화를 양양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기를 제창하는 바이다.²²⁾

우생출판사에서는 위에서 명기된 『위인의 선물』, 『흑산호』, 『참회록』 외에도 『인생론』(톨스토이 작, 계용묵 역), 『검둥이의 설움』(스토우 부인 작, 계용묵 역), 『별무리』(학생문학동인지), 『상아탑』(계용묵 수필집) 등을 출간하였다. 문학 관련 서적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계용묵: 다양한 활동과 그 이면

전란기에 이루어진 계용묵의 제주 체험과 문학에 대해서는 꽤 많이 논

22) 이병일, 『제주와 출판문화』(1953. 10. 9)

의되었다. 『제주문학』 제31집(제주문인협회, 1998)에 ‘계용묵 선생 지상 회고’ 특집으로 실린 최현식·양중해·김영돈·강통원·고영기의 글이라든가 필자의 「계용묵의 제주 체험과 문학」 등이 그 실상을 드러낸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계용묵 선생 지상 회고’는 기억을 더듬어 계용묵의 활동에 대한 사실들을 두루 살폈고, 「계용묵의 제주 체험과 문학」은 그의 제주 관련 문학작품을 구체적으로 고찰했다. 이번에 『제주신보』를 찾아보니 앞서 밝혀진 활동의 양상을 좀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계용묵이 기왕에 알려진 것보다 더 다양한 활동을 벌였음을 가늠할 수 있었다. 『계용묵 전집』(민음사, 2004)에 수록되지 않은 글들도 여러 편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신보』에 처음 발표된 것으로 알려진 「바다」·「말」·「소」·「까마귀」 등의 수필²³⁾은, 유실된 신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지,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다른 창작물도 새로이 찾아낸 게 없다.

기존의 회고기 등에서 언급된 계용묵의 번역 활동은 대부분 확인되었다. 일본어판의 중역이 아닌가 한다. 기사에서 “우생출판사에선 톨스토이 원작 『인생론』(계용묵 역), 스토우 여사 저 『검둥이의 설움』(계용묵 역), 별무리모임 편 『별무리 第 輯』을 각각 인쇄중”²⁴⁾임을 보도하고 있었고, 관련 광고²⁵⁾도 볼 수 있었다.

계용묵이 공연 평을 몇 편 쓴 사실이 전란기 『제주신보』를 통해 드러났다. 『계용묵 전집』에도 전혀 실려 있지 않은 공연평이 이번에 검토한 『제주신보』 지면에는 세 편 수록되어 있었다. 두 편은 연극평이고, 한 편은 무용평(소개)이다. 한정된 지면 때문인지 모두 짧게 씌어졌다.

첫 공연평은 문협의 창립공연인 「탈옥수의 고백」에 관한 것이다. 「탈옥

23) 이 작품들은 ‘탐라점경초’로 묶여 지칭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서지적 사항은 박태일, 앞의 논문, 385~386쪽에 잘 정리되어 있다.

24) 「근간 안내」(1953. 9. 25)

25) “계용묵 역 『참회록』, 「참회록 중의 백미」, 허위의 생활을 버리고 오직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몇 차례의 자살까지 도모한 이 처절 참절한 대문호의 생활 실태를 보라. 사육관 백육십이면 백팔십환.”(1953. 9. 25. 광고)

수의 고백」은 송헌의 작품을 김종철이 각색·연출한 3막 6장의 작품이다.²⁶⁾ 다음은 계용묵의 공연평 일부다.

놀랐다. 우리 제주에 이런 역량 있는 극단이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제주 문화에 한 크다란 플러스가 아닐 수 없다. 아무런 시설도 가지지 못한 이 제주에서 더욱더 충분한 연습의 기간도 없이 극이 가진 바 소기의 효과를 이렇게 충분히 발휘시켰다는 것은 다만 이 문협이 비범한 역량의 소치인 것이다. 무대장치나 조명이 있어서도 그렇거니와 배역들의 그 여유작작한 대사 와 세련된 동작은 더욱이 일류의 급을 말하고 있었다. 여식도 그릇에 따라 그 맛이 더 나고 덜 나는 것과 같이 이 극도 극장다운 극장에서 상연이 되었더라면 그만한 효과가 좀더 나타났을 것을 하는 것이 유감이다. 실로 이 문협의 상연이 거석자리인 이 제주극장에서 상연되기는 부끄러운 일이었다.²⁷⁾

제주에 처음 창립된 극단인 '문협'에 대한 찬사가 중심 내용이다. '역량 있는 극단', '비범한 역량', '일류의 급' 등의 표현에서 극단 문협을 최대한 추어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찬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배역들의 그 여유작작한 대사와 세련된 동작'이라는 근거를 들으로써 의례적인 상찬이 아님을 드러낸다. 게다가 극장다운 시설을 제대로 갖추진 못한 '제주극장'에 대한 비판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의 평은 군사극에 관한 것이다. 1952년 4월 육군군예대(陸訓軍藝隊)가 무대에 올린 「영광에의 길」이 그 대상이었다.

이번 육군군예대 공연의 군사극 「영광에의 길」은 감명이 깊었다. 각본 그 자체부터 구성에의 묘를 얻었거니와 배역들의 세련도 무던했다. 좀해서는 어려운 배역들의 성격이 소대장을 위시하여 다들 뚜렷이 나타나 있었다. 앉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끼여 말뚝축을 고이고 서서 남의 어깨 넘어로 애를 써가며 보는 그런 불편을 느끼면서도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다는

26) 「연극인 망라 문협 창립, 「탈옥수의 고백」 첫 공연」(1952. 1. 22)

27) 계용묵, 「극평—탈옥수의 고백」을 보고」(1952. 1. 29)

것은 이 극이 가진 매력이 아닐 수 없었다. 전시국민을 위하여 또는 연극운동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이 있기 바란다.²⁸⁾

‘감명이 깊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무던했다’·‘불편’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면 썩 내키는 진술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 『탈옥수의 고백』과 『영광에의 길』에 대한 공연평에서 감지되는 계용묵의 태도는 다른 점이 있어 보인다. 1월의 『탈옥수의 고백』 공연은 제주 예술계의 입장에서 보면 일대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저명한 작가이던 계용묵이 평을 통해 그 의미를 부각시킬 만한 충분한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4월의 『영광에의 길』에 오면 사정이 달라진다. 자발적으로 흔쾌히 쓴 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의 처지가 군사극에 대한 의례적 호평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1952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읍내 제주극장에서 발레 공연이 있었다. 다재다능한 예술가 옥파일²⁹⁾의 무용 발표회였다. 옥파일은 계용묵이 중심이 되었던 『신문화』와 『흑산호』의 주요 필자였다. 둘이 친분이 두터웠음이 짐작된다. 따라서 옥파일의 발레 공연에 즈음하여 계용묵이 『제주신보』에 글을 쓴 연유도 짐작된다. 말하자면 이는 공연평이 아니라 사전 홍보성의 글이다.

‘바레’의 기원은 루이 십사세 시대에서 찾거니와 구주에서는 이태리에서

28) 계용묵, 「극평—『영광에의 길』을 보고」(1952. 4. 30)

29) 옥파일은 무용가였을 뿐만 아니라 시도 썼고 그림(『흑산호』 門講도 그의 것임)도 그렸다. 다음은 『제주신보』에 실린 옥파일의 시 「死人の 피리」다.

썩은 돌-/속에 너를 부르러 내가 왔다/내 눈을 充血 되고/내 몸은 殺人한 사람과같이 떨면서 왔다/어서 對答하라 하라 하라 하라-/죽은 者の 버릇과같이 沈黙은 버리고 對答하라.....-/찌르르르르-/너는 對答을 하였드나-/찌 찌 찌르르르-/네가 피리를 부렸드나-/벌레가 우렸드나-/가슴이 문혀지려누나/다시 한번 들려주렴 넌 歡喜와 恐怖가 바뀌기 前/嚴肅한 네 앞에/내 性味が 逆하드나/...../일즈기 죽은 者に 對答 없으리라고/드른 바 없나니/어서 다시 한번 들려주렴/背겨한 너의 門을 열고 내 무릎에 對答을 주렴/언제나 찾아오는 生涯와 死涯의 사이 내가 섰다/썩은 돌/그 안에 이제는 피리까지 감추었드나(1954. 1. 11)

불란서 그리고 로서아로 이렇게 이식이 되면서 그나마 국민성과 그 시대의 사조를 반영시키며 민족예술로서의 뚜렷한 한 분야를 가지고 환영을 받아왔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예술분야에서 민족적인 무용 더욱이 '바레-'와는 인연이 멀었다. 제주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다. 옥파일 씨는 그 붕괴에 □당할 年代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으로 뒤에 숨어서 오직 각고정진 연구에만 몰두하여왔다. 이제 발표를 가지는 이십 편의 작품의 하로 같은 그 결정임에는 중언을 요치 않을 것이다. 이 처녀지에 '바레-의 잠'이 들어가는 이 밤이다. 그리고 그것이 각고의 결정임을 알 때에 자못 우리는 크다란 기대를 갖지 않을 수 없다.³⁰⁾

홍보성의 글이면서도 적잖이 공들인 흔적이 엿보인다. 발레의 기원이나 전파 경로에 대한 설명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이 공연은 성공을 거두면서 21일까지 연장 공연되었다.³¹⁾

군사극 「영광의 길」에 대한 평문을 쓴 바 있는 계용묵은 다시 반공 전선에 동원된다. 그는 '방첩강조주간에'라는 부제 아래 산문 「혀」를 발표하였다. 비교적 긴 글인바, 여기서는 그 뒷부분만 인용한다.

우리는 싸우는 국민이다.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혀끝에 주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필요 이상 놀리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총을 매고 일선에 나아가 싸우는 것에 결코 지지 않는 역할인 것을 인식해야 한다. 혀끝을 삼가는 것이 직접적 싸움에 참가보다 못지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임은 현대전의 역사가 잘 증명을 하고 있다. 거듭 말하거니와 우리는 싸우는 국민이다. 싸우는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하고 무엇보다 먼저 혀를 놀리기를 삼가자.³²⁾

이상에서 보면 계용묵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꽤나 다양한 글쓰기를 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행동반경이 그다지 자유스럽지 않았음도 짐

30) 계용묵, 「바레의 밤」(1952. 9. 15)

31) 「무용회 연기 공고」(1952. 9. 20)

32) 계용묵, 「혀」(1952. 9. 29)

작할 수 있다. 유실된 자료가 확보되어야 그의 제주 체험과 문학의 온전한 양상이 드러날 것이다. 다만 그가 제주에 정착하여 생활인으로서 입지를 다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문학 활동을 전개했음은 틀림없는 것 같다.

4. 장수철: 기항지에서의 삶과 창작

장수철의 경우 1950년 고향 평양에서 『합동신문』 편집을 담당했던 경험이 『제주신보』와의 인연으로 연결되었다. 인천에서 부산 가는 배를 탔다가 뜻하지 않게 12월 26일경 제주에 들어왔다. 그는 서울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제주문총구국대를 찾아갔다. 당시 문총구국대를 맡고 있던 이는 제주신보사 편집국장 김묵이었는데, 그를 만난 것을 계기로 『제주신보』 편집기자가 된다. 그에게는 괜찮은 작품 발표 지면이 확보된 셈이었겠지만, 이번에 검토한 텍스트에서는 시 두 편과 산문 1편 정도를 만날 수 있을 뿐이다.

제주에 있으면서 그는 계몽목과 자주 만나기도 했지만 늘 답답하다는 생각을 지녔던 것 같다. 제주에 대한 애정의 한편에서는 망향(望鄕)의 상념과 더불어 제주를 떠날 날을 고대하고 있었다. 신년시라고 할 수 있는 「便紙—단기 4285년의 頌歌」에도 그런 그의 생각이 묻어난다.

冬栢꽃 고옴게 핀 언덕길 지나/나는/한 장의 便紙를 띠우려 내려간다//眞珠 같은 새벽이/바람 清新한 水平線 위에 내려앉을 때/파아란 封套의 便紙를 떨어뜨리면/무연한 바다 저쪽에서는/귀억어 그리운 바다 우름이 밀려온다//멀고 먼 故鄕의 風上 내음새와/水銀柱 내리는 壘壕속에서/등글한 주먹밥으로 주고받는/아름다운 젊은이의 呼吸들이……//너무도 어지러운 해이였기에/너무도 回想은 슬프기만 했기에//潮流를 따르는 魚族들처럼/내 오늘 바람찬 아침에/우렁우렁 波濤치는 바닷가에 내려가/便紙 한 장을 살짝 띠움은//앞길 아득히 떠는 겨레들의/방울 같은 눈물을 씻으며/兇彈에 傷한 그 貴한 팔다리에/따뜻한 붓대를 어머니처럼 감아주는/勝利의 기운을 도우는 노

래……//그러기에 한 장의 便紙/冬栢꽃 곱게 편 언덕길 지나/저-기 바다에
떠우러 내려간다³³⁾

전쟁의 승리를 통한 국토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반공이데올로기가 표출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저변에 흐르는 것은 유랑자가 지닌 망향 의식이다. 그에게 제주섬은 잠시 머물러 있는 기항지(寄港地)에 다름 아니었다. '멀고 먼 故鄕의 風土 내음새'를 갈구하며 그는 바다 저쪽으로 편지를 띄운다. '冬栢꽃 곱게 편 언덕길'도 그에게는 머물러 있을 만한 곳이 아니다. 지나가야 할 아름다운 길일 따름이다. 그렇다고 전쟁의 와중에 고향 평양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런 처지의 장수철은 사람들이 그리워서 임시수도인 부산에 다녀오고 싶어 했다.

얼마 후에 부산에 꼭 한번 다녀오고 싶었다. 안정이 되니까 부산에 와 있을 문인들 생각이 간절했던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김 사장(제주신보사 김석호 사장, 인용자)은 꽤 승낙하고 공무출장으로 처리해주었다. 신문기자라서 뺏값도 무료였다.

김사장은 또,

“그 대신 부산통신을 써보내야 해요.”

하고 말했다. 물론 3회에 걸친 부산통신을 보냈다.³⁴⁾

위의 회고에서는 '3회에 걸친 부산통신을 보냈다'고 했지만, 그 글은 1952년 1월 8일과 9일 2회만 게재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제주에 돌아와서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부산에 갔다가 오랜 만에 만난 박 시인³⁵⁾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이기 때문이

33) 장수철, 「편지」(1952. 1. 1). 이 작품은 그의 시집에는 실려 있지 않다.

34) 장수철, 『격변기의 문화수첩』(현대문화, 1991), 82쪽.

35) 시인 '박'은 박남수로 판단된다. 박남수는 장수철 시집 『서정부락』(신조문화사, 1960)의 서문인 「저자의 인간과 작품세계」를 썼는데, 그 글에서 박남수는 “張兄과 처음으로 만난 것은 아마 우리가 小學校에 갓 들어갔을 때일 것”(7쪽)이라고 밝혔다.

다. 「부산의 표정」은 “만 일년 동안을 제주섬에 있으면서 항상 말로만 들고 지상을 통해서만 읽고 멀그림히 바라만 보던 부산, 임시서울 부산의 風情에 접한 (...) 감상”³⁶⁾이었다. “형과 또 기타의 젊은 문학인들이 건빵을 한 주머니 포켓트에 넣고 씹으면서도 우리나라 문화발전을 위해 눈물겨우리만치 노력하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³⁷⁾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그려낸 산문이다.

부산에 다녀온 후 장수철의 심경 변화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나도 좀더 넓은 무대에서 뛰어야 한다. 이곳은 너무나 조용하고 외롭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결국 그는 신문사에 사표 낼 결심을 굳혔다. 그는 “제주도를 떠나면서라는 부제를 단 「바람과 돌과 여인과」라는 시작품(詩作品)은 그날 밤중에 별로 힘들이지 않고 썼다.”³⁸⁾ 그 시가 제주도를 떠나는 날 신문에 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인에게 부탁해 놓고 그는 부산으로 떠났다. 1952년 6월 18일³⁹⁾ 『제주신보』에 그 시 「바람과 돌과 女人과—濟州島를 떠나면서」가 실렸다. 시집 『서정부락』에 실린 작품과 거의 같으나 극히 일부가 다르다.

여기/외로운 旅人이 서 있다./鹽分 많은 바람이/柑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風景 속에//그 情든 風景畫 속에/돌각담이 휘-감돌아 쌓이고/그 위에/ 黃昏
은 포근히 내려앉는다.//고요한 黃昏이 내리면/보리밭에서 돌아오는 女人네
들/健康한 웃음소리 가운데엔/낮익은 얼굴도 끼여 있다.//아 낮익은 얼굴들
과 함께/土酒도 고구마도 나누었다./西歸浦 七十里도 불렀다./바람처럼 흘러
간 一年 半이여.//꿈과 같던 一年 半 나날에/ 눈보라 속에서도 피는 꽃이랑/
톨 뜯는 海邊의 少女들이랑/눈을 굴러 즐겨하던 이 고장 風俗들//傳說 많은
風俗에도/鄉愁는 고읍게 물들어/冬栢기름 내음새 풍기는 이 섬에/손을 저어

36) 장수철, 「부산의 표정—시인 박예의 詩信(상)」, (1952. 1.8)

37) 장수철, 「부산의 표정—시인 박예의 詩信(하)」, (1952. 1.9)

38) 장수철, 『격변기의 문화수첩』, 84쪽.

39) 장수철은 “1952년 7월 18일”(『격변기의 문화수첩』, 84쪽)이라고 했으나, 이는 잘못이다. 원고 말미에는 집필일은 6월 16일로 명기되어 있고 『제주신보』에 작품이 수록된 날짜는 6월 18일이다.

몇 번이고 손을 저어//이제/외로운 旅人은 떠난다./故郷처럼 그리운 追憶들
을 담아/바람과 돌과 女人과 떠난다.

장수철은 『서정부락』을 펴내면서 총 5부 37편 중에서 제3부의 8편을 ‘濟州島詩抄’라는 이름 아래 모두 제주도에 관한 시로만 엮었다. 제주도가 그의 문학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가 1년 반 동안 머물렀던 제주의 의미는 기항지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생활인으로서 제주에 살려던 계몽목과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5. 김구량과 김종평: 정훈예술의 실상

1952~54년의 『제주신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이름 중의 하나는 김구량이다. 당시 그는 육군소령으로 제주도병사구사령부 정훈실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희곡 분야를 중심으로 정훈활동을 전개했다. “희곡작품을 본격적으로 집필하는 작가가 나오기 전 춘천에는 공병진, 이형근, 김구량(반공 드라마) 등이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⁴⁰⁾다는 전상국의 언급을 보면 김구량의 작품 성향이 짐작된다. 김구량은 제주 체류 기간에 연극 「밝아오는 한라산」과 가극 「야수」 등의 대본을 집필했다.

당지병사구사령부 정훈실 김구량 소령 원작 제주여고 문예원 총출연 외 가극 「야수」—삼막 구장—가 팔일오기념행사로서 경찰국 공보실 악대의 찬조출연으로 지난 십오일 밤 칠시 제주극장에서 열렸다.(삼일간 공연 예정) (밑줄: 인용자)⁴¹⁾

병사구사령부 정훈실장 김구량 소령이 집필중이던 「밝아오는 한라산」(일

40) 전상국, 「강원문학의 역사와 현황」, 『물은 스스로 길을 낸다』(이름, 2005), 332쪽. 밑줄은 인용자의 것임.

41) 「악극 ‘야수’ 오늘부터 濟劇서」(1952. 8. 16)

명 김봉길 참회록)이 탈고를 보아 작업은 제극에서 무료 시연회를 실시하였고 오는 십일일부터는 일반 공연이 있으리라는데 이 연극은 공비의 잔학상과 경찰토벌대 작전의 고심을 여실히 나타낸 것이라는바 일반의 기대가 크다.(밑줄: 인용자)⁴²⁾

특히 「받아오는 한라산」의 경우 '공비의 잔학상과 경찰토벌대 작전의 고심을 여실히 나타낸' 작품이라고 명시된 점을 보면 전시(戰時) 정훈예술의 중심에 있던 김구량의 성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는 '오현 창립 1주년 기념예술제'의 일환으로 열린 유치진 작 「순동이」 공연과 관련하여 「'동트는 마을'을 보고」(1952. 10. 3)라는 극평을 발표하기도 한다.

김구량의 수상(隨想) 「거리」는 정훈장교로서의 그의 위상을 더욱 보여주는 작품이다. 강성용이라는 제주도의 젊은 장애인의 깨끗한 삶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있는 글이다.

(상략) 나는 거리에서 가장 존경하는 애국청년을 발견한 것을 큰 자랑으로 삼고 싶고 위대한 발견으로써 노벨상 획득을 꿈꾸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여 보았다. 이 위대한 발견이란! 보편적이면서도 피상적일 것이나 그렇나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에 현 실정을 명상하여 볼 때 거리에서 파악한 단편적인 사고 가운데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兩足이 불구자이며 좌수가 역시 불구이면서도 혼잡한 거리를 태연자약한 가운데 명랑한 미소를 띠우고 마차를 끌고 가는 그의 눈부신 생활상을 보았다. 그의 이름은 강성용, 나이는 삼십세, 한림면 청수리 출신이고 현재 남부락 구반에 주거한다고 한다. 무거운 짐을 실고 말과 같이 목적지에 달리면서 회색이 만면하여 구성진 민요를 부르고 있다. 그는 자기 직책에 만족함을 가히 엿볼 수 있다. 후방의 노력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이고 총을 매고 싸우고 있는 일선에 파문으로 화하고 있는 것은 현대전의 특징인 것이다. 자기 직책 분야에 충실히 이행하며 국가에 봉사하는 불구자인 강성용! 그대는 대한의 건실한 믿음직한 청년이다. 지위의 명예를 탐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근면 그대로의 성품은 후방의 국민된 자 누구나 다 그의 모범적인 태도에 존경을 드려야 할 것이다. 어제

42) 「받아오는 한라산」/10일부터 濟劇서」(1952. 6. 11)

도 오늘도 내일도 바람 부는 날도 가리지 않고 애국청년 강성일은 말을 유일의 벗 삼아 運搬報國의 충성을 다하고 있다. (하락)⁴³⁾

김구량은 제주도의 문화에 관한 관심도 많았던 것 같다. 「추자도 기행」⁴⁴⁾과 「三無 小考」⁴⁵⁾ 등이 그의 제주도에 관한 관심이 표출된 글이다. 특히 「삼무 소고」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제주의 삼다를 '石多, 風多, 馬多'로, 삼무를 '無遊, 無盜, 無乞'로 말하고 있다. '女多' 대신에 '馬多'를, '無大門' 대신에 '無遊'를 각각 내세운 점이 이채롭다. 삼다·삼무 담론의 형성 과정과 관련하여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글이다.

김구량과 더불어 군인으로서 『제주신보』에 작품을 많이 발표한 이로 김종평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그의 시 가운데에는 4·3 관련 작품이 있어 눈길을 끈다. 「鎮魂賦—故 朴珍景 大領 追悼碑 앞에」(1953. 2. 14)라는 작품이다.

耽羅城 옛 터전에/仲秋 싸늘한 氣運 차은데/故鄉 하늘 바라보며/오오 花郎의 자랑/故 朴珍景 大領의 追悼碑 서다//구름은 한층 漢拏靈峯을 가리우고/龍頭蒼波 흐느껴 우는/壬辰 구월 초일옛날-/焚香은 피고/伊樂 슬피 흐르는 데/素服한 未亡人/白布帳 除幕의 손이 떨림은/富貴功名 다 버린/그대 榮譽를 아뢰색임인가//양지진 嶺 기슭에/우뚝 솟은/九尺의 追悼碑/영롱한 自然石에/알알이 '故朴珍景大領追悼碑'/아아 가슴 빼게이는 비명//蚊龍靑雲 타고/漢拏靈山/五百將峯에 오르는 듯/그대 榮譽 千秋에 남으리

4·3토벌 임무를 맡은 국방경비대 제11연대장이었던 박진경 대령은 1948년 6월 18일 무모한 토벌전을 벌였다는 이유로 부하들에 의해 암살당한 인물이다. 이 시를 쓴 김종평은 제11연대의 정보참모로 박 대령 암살 당시의 계급은 중령이었다.⁴⁶⁾ 박진경 추도비는 1952년 11월 7일 제주도

43) 김구량, 「거리」(1953. 2. 4)

44) 김구량, 「추자도 기행」(1953. 4. 1)

45) 김구량, 「삼무 소고」(1952. 5. 22)

46)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제주4·3위원회, 2003), 217쪽. 김종평은 후에 특

군경위원회가 주동이 되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⁴⁷⁾ 이 시에 ‘壬辰 구월 초일엿날’⁴⁸⁾로 되어 있음을 보면 비문 관독이 잘못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종평은 이 작품 외에도 「민족의 봉화」(1953. 3. 2)라는 3·1절 기념시, 「奉魂嶺—中門面 出身 戰歿將兵 靈駕에 삼가 읊노라」(1953. 4. 5), 「설맥」(1953. 4. 30) 등의 작품을 『제주신보』 지면에 발표하였다. 다음의 「봉혼령」은, ‘중문면 출신 전몰장병 영령에 삼가 읊노라’라는 부제가 말해주듯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중문면 출신 전몰장병들을 추모하는 작품이다.⁴⁹⁾

그때 마지막 피 한 방울을/祖國에 바치고/戰友에 품에 돌아오다//荒涼한
삶을 거두고/내 고향에 돌아오다//낮익은 마을 찾아/그리운 이들 만난 뒤/다
시 戰線으로/魂마저 바치오리//어화 어화/거리 九死에 巔坐하시라.

전형적인 전쟁기 시의 양상을 읽을 수 있다. 제주의 젊은이들이 4·3의 광풍에 이어 한국전쟁에서도 많이 희생당하였음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처럼 김구량과 김종평은 군인 신분으로서 당시 제주도에서 전개된

부부대장을 역임하고 준장으로 예편하였으며, 김종평으로 개명하였다.

47) 『제주4·3유적 I』(제주도·제주4·3연구소, 2003), 293~295쪽.

48) 9월 7일이 음력이라면 양력으로는 10월 25일이 된다.

49) 김창식의 「三六柱」(1952. 3. 16)도 「봉혼령」과 같은 성격의 작품이다.

화창하게/끝없이 부푸른 하늘/故土에/말없이 돌아온 너희들/찬란한 이름을 불
러보자/三百六十八柱/하나 하나 떠오르는/오리 오릿한 얼굴/바다가 몹시 흔들던
그날/너희를 불러서/여기 산지향을 떠날 때/그 늙은 모습은/지금/어느 하늘가에
박히고 있는가/저어기 험한 산령에서/마지막 어머니가 몹시도 그리울 때/가슴팍
에 얹힌/내 가슴에 오는/오릿한 너희 十字架의 모습이여/그것이 이곳 南海에서/바
다가 너희에게 말한/바다에서 자라나며 키워온/바다의 순정이다/조국의 산하에
피어난 순정의 꽃이어라/너희가 한번은 우르러보고/날아가라언 저어 영원한 하늘
에서/찬란히 빛내이다/다시 너희에게 줄 부활이 올 날을/믿어 기다려라/아-/저마
다 날라가버린 별이여/저마다 날라가버린 별이여/삼월구일 -영령을 맞으며/산지
부두에서

정훈예술의 실상을 가장 잘 보여준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활동은 한반도의 다른 후방에서 전개된 정훈예술의 양상과 유사한 맥락이었다고 본다. 다만 4·3 관련 작품 같은 것은 제주지역의 독특한 상황을 반영한 경우라고 하겠다.

6. 제주의 청년문사들과 학생문단

해방 직후에 제주에도 문학 열기가 뜨거웠다. 『신생』이라는 잡지를 통해 그 역량이 결집되기도 했다.⁵⁰⁾ 하지만 4·3의 발발로 그 열기가 이어지기 어려웠다. 문학적 역량을 지닌 제주의 인재들이 많이 희생되었다. 그런 가운데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의 예술인들이 제주에 들어오면서 그 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계몽목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그는 잡지와 동인지 간행을 주도하고 제주의 청년문사들에게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별무리’ 모임을 결성케 하면서 중·고·대학생들을 지도했다. 별무리의 활동과 관련된 기사는 『제주신보』에서도 접할 수 있다. 방송극 제작, 작품 감상회 개최, 작품집 『별무리』 간행 등 아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음이 확인된다.

별무리모임 문화선전부 연극반에서는 팔·일오를 기념하기 위하여 방송극 『조국의 운명』(강군항 작) 전 삼경을 방송기로 되었는데 방송시간은 오늘(이십삼일) 하오 팔시부터 팔시반까지라고 한다.⁵¹⁾

별무리모임에서는 십오일 하오 칠시 시내 YMCA회관에서 ‘한글날 경축 작품 감상의 밤’을 개최한다. 한편 동문단 지도위원 중 박재식 최영석 정치근 제씨 황성희 김인지 유희진 응진 이형근 옥파일 양중해 제씨를 지도위원

50) 이에 대해서는 김동윤, 『해방 직후의 제주문학—신생을 중심으로』, 『제주문학론』, 143~167쪽을 참조 바람.

51) 『방송드라마 별무리모임서』(1953. 8. 23)

으로 추대하였다.⁵²⁾

‘성장(星長)’이었던 강군황은 제주대학 국문학과 재학생이었다. 1952년 제주대학 개교와 더불어 국문학과가 개설된 점도 제주문학 발전에 큰 의미를 지닌다. 당시 제주대학 국문학과 교수였던 현평효의 「별무리 모임과 제주문화」는 별무리모임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그 위상을 잘 보여준다.

지난 칠월에 읍내 남녀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단위로 한 명씩 발기인이 되고 그 이름을 아리따운 ‘별무리모임’이란 제주학생들의 문학단체가 창립되었다. (...) 청소년 학도들만이 모여진 이 단체가 이루어진 지 불과 수삭에 그 움직임은 자못 활발하다. 본도 일원적으로 각 중고등학생 중 문예에 재능 있는 학생들의 회원가입이 있는 한편 정기적으로 매 토요일 문학강좌를 열어서는 문학에 대한 지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고, 벌써 행사로서도 대외적인 ‘문학감상회’를 세 차례나 지냈음에라! 그 성과 여하란 불문하고 우선 그들의 열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회원들의 창작욕을 북돋우고 고순하 씨의 희생적인 投志로 우생출판사에서 『별무리』 제1집이 인쇄중에 있다니 이 제주가 낳은 문학청년들의 별과 같이 반짝이고 보석같이 빛나는 작품들을 우리는 허심탄회 순결한 마음으로 마지하여 읽어보고 좋은 점 돌려주며 언치않은 점 께워줌이 맞당치 않겠는가!⁵³⁾

당시 제주의 청년문사들 중에서 양중해가 비교적 나이가 많았다. 그래서 그는 별무리 모임의 지도위원이 되는가 하면, 『신문화』나 『흑산호』에도 글을 실었다. 전란기의 『제주신보』에서는 「등대」라는 그의 시를 접할 수 있다.

悲歡의 絶頂에서/限死코 蒼波로 뛰어들려다/그대로 굳어져버린/너 燈臺
여!//몸을 비비꼬며 미친 듯 울부짖는/薄連한 海岸線에 발을 붙혔어도/푸른
하늘의 구름을 모아 가슴에 품고/거리도 싸늘하게 기다리는 歲月이나?//千里

52) 「한글날 경축 작품감상회」(1953. 10. 15)

53) 현평효, 「별무리 모임과 제주문화」(1953. 12. 14)

외따른 섬에/귀양살이 하다 죽은/恨 된 선비의 넋이/風化한 모습이렸다--//아
득한 水平線에 太陽이 죽고/황망한 누리 弔哭에 덮혔서도/億萬年 기다려도
못다 그릴 보람에/지워질 듯 지워질 듯//아아, 傳談처럼 깜박이는 저 붉은
불⁵⁴⁾

절해고도이기에 유배지로서 각광받았던 제주섬의 정서가 배어 있는 작
품이다. 양중해가 포착한 등대는 유배인의 한이면서 제주인의 한이기도
하다. 이후 양중해는 1959년에 『사상계』를 통해 문단에 나서면서 오랫동안
안 제주문단의 중심인물로서 활동한다.

1959년에 간행된 동인지 『문주란』의 발간을 주도했던 이근(이치근)의
시도 전란기 『제주신보』에 실려 있다. 서울사대 재학 시절의 작품 「너를
찾아—S의 영전에 드림」이다.

어제는 두뿔 길/오늘은 강 두던/어느날은 물끝 길로//구름에 안기고/두견
새 앞장세워/輓歌를 합창하며/바람에 흘러서/어미 잃은 사슴인양//나는 걸어
야 하느냐?/나는 또 걸어야만 하는 거냐?//잊어버린 그리움을 부르며/너를
찾아서/너를 찾아서/--6·14일 저녁 龍水에서⁵⁵⁾

『제주신보』는 특히 여러 차례 ‘학생특집’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문예작품
들을 게재하였다. 훗날 시인이 된 김종원(당시 제주일중)의 「비탈길」(1952.
3. 17), 부택훈(당시 제주농고)의 「지금은 새벽 네 시」(1952. 3. 10) 등이
학생특집란에 실렸다. 제주도교육회 주최 전도학생문예작품 현상공모에서
초등부에서 현기영이 「무공」이라는 콩트로, 고등부에서 박철희가 수필 「
파돏소리」로, 김종원이 시 「보리밭」으로 입상하였다는 기사도 있다.⁵⁶⁾

1954년이 되면서 『제주신보』에는 시조가 몇 편 게재되었다. 이윤희의 「
敬老會感」, 김성진의 「濟州風景」 등이 그것이다.

54) 양중해, 「燈臺」(1954. 1. 27)

55) 이근, 「너를 찾아—S의 영전에 드림」(1952. 5. 19)

56) 「학생문예공모 입상자 결정」(1953. 9. 15)

- 一. 人生苦樂 격고나니 西山에 해저무네/美酒佳肴 배풀리니 가룩한 뜻 고
마워라/아마도 오날의 모임 世善之德인가 하노라
- 二. 人間에 도음이란 平行線이 없는 것을/古稀라고 이 자리에 모인 것만
부끄럽소/世上에 善德을 펴니 餘慶 어이 없으랴⁵⁷⁾

漢拏山 중허리에 白雪이 徐徐하고/西歸浦 돌담우에 동백꽃 만발일세/咫尺
間 雪花亂舞는 濟州風景인가⁵⁸⁾

일상의 생각을 담아내고 겨울의 풍경을 그림처럼 포착하였다. 소박한 작품들이다. 당시 제주에서 시조 창작의 붐이 일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시조 창작과 관련된 어떤 모임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고찰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상에서 보듯, 『제주신보』가 새로이 지펴지는 제주의 문학 열기와 관련한 아주 요긴한 매체였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초반에 학생과 청년 문사를 중심으로 제주지역문단이 재건의 싹을 틔우고 있었음도 이 매체에서 확인되었다.

7. 마무리

이 글을 제주도의 전란기(1948년 4월~1954년 9월) 중에서 1952년 1월부터 1954년 9월까지 간행된 『제주신보』를 통해 당시에 전개된 제주 문학의 양상을 고찰한 논문이다. 당시의 유력 일간지인 『제주신보』에서는 4·3토벌과 한국전쟁이라는 전란 속의 제주의 사회상이 파악되는바, 특히 제주에 상주하는 예술인들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장르에서 예술 활동의 열기가 지펴졌음이 확인된다. 『제주신보』에 나타난 당시의 문학 활동의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처지와 지향이

57) 이윤희, 「敬老會感」(1954.3.12)

58) 김성진, 「제주풍경」(1954. 2. 23)

문학 활동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것이다.

첫째, 계몽목의 경우를 주목해 보면, 그는 3년 반의 제주 체류 기간에 잡지 간행과 문학청년 지도뿐만이 아니라 연극평·무용평을 썼는가 하면 반공전선에도 동원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음이 『제주신보』 지면에서 확인되었다. 그는 생활인으로서 제주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계에 두루 영향을 끼친 작가인 셈이다.

둘째, 장수철의 경우에는 1년 반 동안 제주에 머물면서 시 「편지」·「바람과 돌과 여인과」, 산문 「부산의 표정」 등을 『제주신보』에 발표하였다. 그의 작품을 보면 제주에 대한 애정도 나타나지만 망향(望鄕)과 더불어 제주를 떠나기를 꿈꾸고 있었음이 포착된다. 그에게 제주는 기항지(寄港地)적 지점이었다는 것이다.

셋째, 군인 신분으로서 전시(戰時) 정훈예술의 실상을 보여준 김구량과 김종평을 『제주신보』에서 주목할 수 있다. 김구량은 공비토벌 관련 연극 「밝아오는 한라산」과 가극 「야수」 등의 대본을 집필하고 공연평을 쓰는 등 희곡분야에서 주로 활동했고, 김종평은 「진혼부」·「봉혼령」 등의 시를 통해 전란에 희생된 군인들을 추모하면서 애국심을 고취코자 하였다.

넷째, 지역토박이들의 경우에는 학생·청년문사 등을 중심으로 지역문단 재건의 싹이 트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제주신보』 지면에 도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별무리’ 모임이 비중 있게 취급되었고, 문학청년 양중해의 시를 비롯하여 이근·김종원·부택훈·박철희·현기영 등의 작품 또는 활동을 ‘학생특집’이나 기사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특정 신문에만 주목한 나머지 『동아일보』·『조선일보』 등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중앙지와외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주목하지 못했다. 아울러 다른 지역의 지방지와외의 상관성도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특정 지역문학의 현상적 이해라는 측면에 머물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전란후의 『제주신보』 지면에 나타난 문학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전란기 문학의 양상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 핵심어: 제주신보, 제주문학, 정훈문학, 계용묵, 장수철, 김구량, 김종평

<참고 문헌>

- 김동윤. 『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8.
- 김병택. 『제주현대문학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5.
- 김영화. 『변방인의 세계』.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 박태일. 「1950년대 전쟁기 문학과 제주의 지역성」. 『한국언어문학』 제71집. 한국언어학회, 2009, 385~386쪽, 400~407쪽
- 부만근. 『광복제주 30년』. 문조사, 1975.
- 『신문화』 1~3호. 신문회사, 1952~1953.
- 이문교. 『제주언론사』. 나남출판, 1997, 123~171쪽.
- 장수철. 『서정부락』. 신조문화사, 1960.
- 장수철. 『격변기의 문화수첩』. 현대문화, 1991.
- 전상국. 「강원문학의 역사와 현황」. 『물은 스스로 길을 낸다』. 이룸, 2005, 332쪽.
-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위원회, 2003.
- 『제주4·3유적 I』. 제주도·제주4·3연구소, 2003.
- 『제주신보』. 1952. 1. 1~1952. 4. 30, 1952. 8. 1~1954. 4. 26.
- 『흑산호』. 우생출판사, 1953.

<Abstract>

Jeju Literature and *Juju Shinbo* during the War Period

Kim Dong-yun

This paper explores Jeju literature through *Jeju Shinbo* published between Jan. 1952 and Sep. 1954 during the War Period (Apr. 19 to Sep. 1954). *Jeju shinbo*, a then leading daily newspaper, depicts Jeju's social conditions during the War Period of April 3rd Suppression and the Korean war. In particular, it shows that artistic activities heated up thanks to an increasing number of artists living in Jeju. The aspects of Jeju literature shown in *Jeju Shinbo* are as follows:

First, *Jeju Shinbo* provides information on Kye Yong-mook. He stayed in Jeju for three and a half years during which not only did he publish magazines and teach literary youths, but also he did a variety of activities including writing reviews on plays or dances, and being mobilized in anti-communist movements. It can be said that he is a writer who strongly influenced the local cultural and artistic community while living in Jeju.

Second, in case of Chang Soo-cheol who stayed in Jeju for one and a half year, in *Jeju Shinbo* he published poems like "Letter" and "Wind and Stone and Women," and prose like "Busan's Expression." His literary works show he had an affection for Jeju, but at the same time he missed his home and wished to leave Jeju. To him, Jeju was a port of call.

Third, Kim Gu-ryang and Kim Jong-pyeng attracts our special

attention from *Jeju Shinbo* because they were soldiers and their literary works fill us in on the art of troop information and education. Kim Gu-ryang played a role in the drama, writing scripts about sweeping communist guerrillas, and reviewing performances. Among his works are a play "Dawning Halla Mountain" and an opera "The Beast." Kim Jong-pyeng paid a tribute to the war dead and aroused patriotism with poems such as "Repose of Souls" and "Solice of Spirits."

Forth, in case of Jeju natives, students and literary youths played a leading role in establishing local literary circles. *Star Cluster*, a literary society of local middle, high school, and students, was given much more weight in *Jeju Shinbo*. *Student Literature* and other articles provide data on a literary youth, Yang Jung-hae's poems, and other literary works of Kim Jong-won, Bu Taek-hun, Park Cheol-hee, and Hyun Ki-young.

- Key Words: Jeju Shiobo, Jeju Literature, TI&E Literature, Kye Yong-mook, Chang Soo-cheol, Kim Gu-ryang, Kim Jong-pyeng

* 이 논문은 2010년 1월 25일 투고되었고, 2월 16일 심사 완료되어 2월 19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